디지털사회와 생산적 정치인프라 구축 : 지식기반 정치의 실현과제와 구현방안

노규성*, 김기봉**, 박영민***

목 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사회와 정치적 신뢰의 위기
Ⅲ.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와 생산적 정치 인프라
Ⅳ. 지식기반 정치와 지식정치운동
Ⅴ. 지식기반 정치의 과제와 구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Key Words : 지식기반.디지털 사회

Abstract

* 선문대, ksnon@sunmoon.ac.kr
** 한국기술경제연구원, wingra@dreamwiz.com
*** 한국기술경제연구원, welovepeace@korea.com

Ⅰ. 서론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사람들의 접근과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인터넷은 이메일, 메신저, 개인간 정보공유(P2P)와 같은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뿐 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과 같은 전자상거래 분야,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사회로의 대변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정치적인 패러다임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지배구조, 국가운영체계, 경제, 사회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디지털 공간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역, 계층, 세대를 넘나드는 참여정치의 기초가 되고 있다. 즉 디지털환경에서는 수평적인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한 정보의 유통, 즉 정치적인 의견을 교환하거나 집단적인 의사를 결집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는 등 기존의 정치과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후보의 지지를 확산시키고 조직화를 통해 정치적 위력을 발휘하는 디지털 정치참여의 커다란 영향력을 경험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사회의 모습과 정치변화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선 살펴보고,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왜 지식기반 정치가 중요하고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적 정치인프라로서 지식기반정치의 실현과제는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고 그 구현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Ⅱ. 디지털사회와 정치적 신뢰의 위기

1. 디지털 사회에서 정치환경의 변화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 전사회적으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독점적인 정치환경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이러한 정치환경 변화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다. 디지털방식은 디지털공간으로의 이동과 민주적인 쌍방향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과거의 정치가 권위주의적 일방통행의 정치라면 디지털기반의 정치는 쌍방향 의사소통(Interactive communication)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오프라인(Off-Line) 중심의 정치에서 결합과 융합의 정치로의 발전이다. 기성세대가 주도적으로 독점했던 오프라인 일변도의 정치환경이 20대, 30대가 적극 참여하는 온라인세대 등장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Online-Offline) 융합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16대 대선과정에서 국민경선제나 '노사모'의 활동 등은 온라인-오프라인 융합에 의한 정치과정의 대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

다.

셋째, 수동적인 정치가 자발적인 참여정치로 변하고 있다. 대규모 군중집회, 세과시 등 수동적인 동원 정치문화가 쇠퇴하고 붉은악마, 촛불시위, 노사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발적 참여 정치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2. 불신정치와 국민신뢰의 위기

오늘의 정치상황을 개탄치 않는 국민이 없다. 지역볼모정치, 권력투쟁의 정치, 보스에 대한 충성경쟁,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부패의 정치, 군사문화와 개발독재의 잔재인 권위주의의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은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지역분열정치, 부정부패와 금권정치, 대결의 상극정치, 계파정치 등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 정치'를 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적인 신뢰기반의 정치가 되고 새로운 정치환경에 부합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치를 책임질 각계각층의 전문 인력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보화시대에 맞는 디지털(전자) 정당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가 상호 소통되고 적극 수렴되는 현대적 정치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즉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미래지향적 유권자중심의 정당을 구축할 수 있는 철저한 정치개혁이 요구된다.

III.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와 생산적 정치 인프라

1. 정치주체의 변화

참여정부의 등장은 전전세대에서 전후세대로, 일제 강점기 교육세대에서 한글세대로, 산업화세대에서 민주화세대로 우리사회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그동안 정치적 무관심층이었던 20대, 30대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대변화는 과거의 권력 투쟁중심의 정치에서 국가 경영의 정치, 즉 정책경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정치주체로서 정책전문성을 갖은 세력의 등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책전문가의 조건으로는 정책전문성, 민주적 리더십, 국제경쟁력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해관계 집단의 복잡성과 국제적인 이슈와 관련된 국가정책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전문가는 비전제시능력, 현실성 있는 정책구상과 추진능력, 그리고 정책신념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전문가 집단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독과점적인 정치구조를 변화시키는 법 · 제도의 개혁이 절실히 요망된다.

2. 정당구조의 변화

(1) 민주적 리더십 요구

현재 우리사회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개인들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한 결과로 최근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 혼탁한 선거에 대한 비판, 투표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적인 요구는 1인 보스체제의 해체와 하향식 공

천제도의 개혁을 통해 지역주의의 극복,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정책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즉 지도체제 개혁을 통해서 진성 당원이 많은 정당, 정당 운영의 민주화와 합리화를 통해 민주적 리더십이 정착되는 정당의 구축이 요망된다. 특히 지도부 선출방식도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가 요구된다.

(2) 중앙당과 지구당의 변화

현재 각 정당은 중앙당과 지구당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구조에서의 지구당은 민주주의의 모태이다. 그러나 지구당의 제왕적 1인 지배체제인 지구당 위원장제는 과도한 정치비용을 유발시키고 상향식 공천을 왜곡하는 등 정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당과 지구당의 관계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당원이 당의 구조와 운영에서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정당구조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당의 비효율,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대화된 중앙당 기능과 역할 축소해야한다. 중앙당을 정책지원과 선거지원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디지털 정당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정치자금의 투명성

최근의 대선자금 문제와 권력형 비리 문제로 소모적인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편익과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책임지는 정치가 그 역할과 책임을 방치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의 문제는 일부 정치인, 정당에 제한된 문제가 아닌 정치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자금제도를 재검토하여 정치자금과 부패문제로 인해 정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

3.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세력화와 지식기반정치의 요구

사이버 공간을 통해 오프라인의 정치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정치참여(digital political participation)의 영향력을 보고 있다. 하워드 라인골드(Howard Rheingold)는 새로운 참여주체로서 스마트 모브 즉 영리한 군중의 개념을 제시했다. 스마트 모브(Smart Mob, 영리한 군중)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무장한 대중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시위와 압력행위 등을 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군중이다(정연정, 2003).

사이버공간에서 세력화된 영리한 군중은 단순한 개념의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정치참여의 유형들을 창출시키고 있다. 첫째, 영리한 군중은 이동전화,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영리한 군중은 정책 의제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셋째, 영리한 군중은 국제적 시민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동시에 다양한 정치 · 사회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민연대조직을 창출한다.

이러한 디지털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기반정치의 기반조성이 필수적이다. 정치집단이 정치의 낙후성과 이에 의한 폐해를 극복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리드하는 국가의 엘리트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를 구성하는 정당, 정치인, 각종 제도 등 제 요소가 지식마인드로 무장하고 지식기반 구조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식정치 구현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식기반 정치문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IV. 지식기반 정치와 지식정치운동

1. 지식정치의 구성요소

지식기반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먼저 지식기반의 정치시스템이다. 이는 지식을 기반으로 선진화된 정치제도와 체계를 말한다. 둘째, 지식정치인이다. 각 전문분야별로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고 창출하는 정치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식정치문화이다. 지식정치가 꽃을 피우고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토대, 문화, 조직 및 제도가 중요하다. 넷째, 정보기술 인프라(infrastructure)이다. 이는 정치의 지식화, 정치지식과 정보의 구축, 활용을 위한 정보기술의 토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지식정치 이해가 필요하다. 구태 정치인으로부터 지식정치인을 가려내고 정치인을 지식정치인으로 길러낼 수 있는 지식정치를 이해하고 있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지식정치운동의 조건과 방향

지식정치가 실제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이해 속에서 출발될 때 지식기반 정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지식정치가 국민생활 속에 스며들고 그 효과로 정치가 지식기반위에 서기 위해서는 지식정치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정치운동이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시작되어야 한다. 지식정치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노규성, 2003).

(1) 정보화를 통한 정치의 질적 향상 구현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의 정치적 욕구와 요구사항을 즉각 수집 · 반영할 수 있는 정치현장의 정보화 구현이다. 세계 각국의 정치실태, 시시각각의 실시간(realtime) 정보를 즉시 습득, 정치의 질적 제고를 위한 외국정치정보 획득 체계화가 중요하다

(2) 전문화를 통한 정치기능의 회복

돈 정치, 인맥정치를 극복하고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지식인에 의한 지식정치 실현이다.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지식정치인에 의한 법 · 제도의 제정, 전문성의 실현으로 정치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선진화를 통한 민주정치 실현

정쟁과 모략 중심의 현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토론 · 대화 · 협상에 의한 선진 민주정치 구현에 있다고 본다. 부정부패나 사리사욕을 위한 후진정치를 탈피하고 경영 마인드에 의한 저비용 · 고효율의 경제정의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4) 학습화를 통한 지식정치의 고도화 실현

정치환경의 변화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지식정치 문화와 풍토 조성이다. 정치인과 당원의 학습화를 위한 학습시스템 도입 및 상시적 학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가 역시 학습과 전문지식의 정도가 반영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5) 도덕화를 통한 맑은 정치 실현

부도덕하고 불분명한 정치자금의 근절, 정치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적 평가 등을 통한 정치인의 도덕성 회복으로 맑고 투명한 정치 실현해야 한다. 정치인의 개인 신상과 재산 내역, 정치자금의 내역, 공약에 대한 실현 내역 등 정치인의 제반 활동 내용을 철저히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되어야 한다.

V. 지식기반 정치의 과제와 구현방안

1. 지식기반 정당의 구현

당을 학습조직으로 탈바꿈하여 지식기반 국가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하는 지식 기반 정당, 즉 디지털 정당화로의 발전이다. 당 연수원을 평생학습원(지식아카데미)으로 전환하여 지식정치인 양성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특히 당 조직 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저비용 · 고효율의 당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의 지식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지식경영' 도입(지식관리시스템 구축)도 고려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국가지식원의 설립, 지식정치인과 지식행정가 양성 전략도 세워야 한다고 본다.

2. 지식국회의 구축

국회 운영 정보의 대국민 공개 의무화하고 국회의 인력 효율화 방안 도입 고려함과 동시에 국회 보좌진의 전문인력 풀(pool)제 운영으로 법과 제도 입안의 전문지식화를 해야 한다. 국회 보유 지식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도입과 국회 연구조직의 확대 및 체계화 통해 연봉제 도입 및 프로젝트 기준의 급여 지급 등도 검토해야한다.

3. 정책전문가 세력의 진입

지식정치인의 정계진출과 비전문 정치인의 퇴출이 용이한 정치인 지식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먼저 후보군 선정하고 후에 개혁성, 전문지식,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주요선거에 입후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치인이 각 전문분야별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수집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지식인 수혈을 위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확립하여 전문분야별 대표의 세분화 및 직능의 비례대표 1/3 이상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존 정치인의 전문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학습(교육) 프로그램 시행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4. 정치자금제도의 합리화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의 목표는 투명선 제고와 자율시스템 확보에 있다.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수입과 지출의 공개, 단일계좌 사용, 회계책임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정당과 후원회의 자율통제시스템을 구축을 위하여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선임하고 후원회의 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금(예를 들면 개인 500만원, 기업 1000만원 이상)은 그 성격을

기록으로 보존한다.

5.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인프라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정치센터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치관련 지식?정보 패턴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정치환경, 정치현장, 정치세력별 정보의 수집원천의 도표화(mapping)를 통해 새로운 정치지식 발굴, 창출을 위한 사이버 토론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치인 지식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식정치인 양성 교육 모델 개발과 지식정치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VI. 결론

정치가 선진화되면 장기적인 국가발전은 보장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정치현실은 이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와중에 디지털사회가 도래하고 디지털 공간을 활용하는 정치문화가 꽃피우면서 기성정치가 위기에 몰려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정치적 환경에서 정치주체의 변화, 정당구조의 변화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세력화와 지식기반정치의 요구 등 정치의 패러다임 변화 모습을 진단하고 생산적 정치인프라로서 지식지기반 정치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식기반 정치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지식정치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지식정치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지식정치운동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식기반 정당의 구현, 지식국회의 구축, 정책전문가 세력의 진입, 정치자금제도의 합리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인프라 구축 등 지식기반정치의 체계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적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현실정치가 갖는 한계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지식기반의 정치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것이므로, 실증적인 자료나 검증을 토대로 이루지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식기반정치 실현을 위한 구성요소나 도입방안 중 어느 것이든 실제 정치현장에 도입한 사례연구나 검증 과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1. 김성태. 『전자정부론: 이론과 전략』. 법문사. 2003.

2. 김영래 엮음.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오름. 2001.

3. 노규성, 정치개혁과 지식기반 정치, NSIK FOCUS 제2호, 새시대전략연구소, 2003. 4. 5, pp. 8-9.

4. 윤영관,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신호서적, 2001.

5. 전자신문사. 『인터넷연감』. 2002.

6. 정보통신부. 『한국의 정보화전략』. 2003.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식기반국가건설을 위한 정부개혁』. 1999.

8. 정연정. 한국의 온라인참여군중: 스마트 모브(Smart Mob)의 등장. 미래전략연구원. 2003.

9.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자정부백서』. 2003.

10. 진중권.김병준 외 27인, 2003년 세상보기 세상 좀 알고 삽시다, 하이비전, 2003.

11. 한국전산원. 『2002 국가정보화백서』. 2002.

12. 황주성 외. 『사이버문화 및 사이버공동체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1.

13. Norris, Pippa.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in Democratic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